

25년 1월 목회일정

| | |
|----------|-------------------------|
| 5일(주일) | 수료 및 진급식 |
| 12일(주일) | 성찬조별기도회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 |
| 1-2월(오후) |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
| 6일(월) | 노회 신년인사회(함께하는교회당) |
| 20일(월) | 두 교회 교역자 수련회 |
| 29일(수) | 세속명절(설) |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
|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
|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 |
| 3. 임시직분자 임명식 / 오늘 주일 오전예배 후에 있습니다. | |
| 4. 성찬교구와 성찬조 / 변경된 내용은 별지와 주보 7면을 참고 하세요. | |
| 5. 수료 및 진급식 / 오늘 오전예배 후에 있습니다. · 청년회 : 이근영 · 고등부 : 구아영 | |
| 6. 4/4분기특별헌금 / 합 2,354,000원 | |
| 7. 성찬조별기도회 / 다음 주일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 |
| 8. 기부금영수증 /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 |
| 9. 목사동정 / 노회신년인사회-6일(월) 17:30 (함께하는교회당) | |
| 10. KTS청년리더캠프 / 7(화)~9일(목) 고려신학대학원 · 참가 : 이근영 성도(고신대 신학과) | |
| 11.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
| 1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김낙형 안내-조안나 | |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 주일예배 | 오전 | 11:00 |
|-------|-------|------------|
| | 오후 | 15:00 |
| 주간기도회 | 아침기도 | 06:00(월-금) |
| | 수요기도회 | 09:30 |
| | 금요기도회 | 21:00 |
| | 지역기도회 | 각지역결정 |
| 교회학교 | 유/SFC | 주 13:00 |
| | 교회알기 | 주 13:30 |
| | 청년회 |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 | 01월 | 02월 |
|------|-----|-----|
| 교회소식 | 고충석 | 김영민 |
| 봉헌 | 김낙형 | 구성본 |
| 안내 | 조안나 | 최진언 |

평균케 하는 원리

| 후원 |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
|----|-----------------|
| |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
| 선교 |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
| |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
| 구제 | 곡성연화교회(최지혁) |
| | 부산장매인전도협회(정용균) |
| 장학 |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주 / 문경실

주후 2025.01.05(제29-01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
|--|--|------------------------|
| | 교회소식 | |
|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개회 | |
| | * 예배에로의부름 ↑ | 시 121: 1-2(교송) |
| | 인도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 |
| | * 축복의인사 ↓ | 고전1:3(인도자) |
|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 | * 경배찬송 ↑ | 찬송59장(1a-1b) |
| | 죄의고백 | |
| | * 십계명봉독 ↓ | 출20장(전계명/교독) |
| | * 죄의공적고백 ↑ | 제 4형 |
| | * 용서의은혜의선포 ↓ | 인도자 |
| | * 감사찬송 ↑ | 찬송가79장(1-2) |
| | 말씀봉사 | |
| | 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 |
| | 성경봉독 ↓ | 약4:8-10, 애5:19-22 |
| | 선포를위한찬송 ↑ | 시편79편(1-3) |
| | 설교 ↓ | 설교자 |
| |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 |
| | 아멘송 ↑ | 찬송가643장 |
| | 성례시행 | |
| | 세례식 ↓ 필요시 시행 | |
| |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 |
| | 목회기도 ↑ | 설교자 |
| | 봉사사역 | |
| | 봉헌및봉헌찬송 ↑ | 찬송44장 |
| | 폐회 | |
| | * 강복선언 ↓ | 설교자 |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 | | | | | |
|---|--|---|--|---|--|
| <div>주일오후예배</div> <div>교회소식</div> | | <div>오후 3시</div> <div>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div> | | <div>주간기도회</div> | |
| <div>* 예배예로의부름 ↑</div> <div>인도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div> <div>회 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div> | | <div>시134:1,3(교송)</div> | | <div>아침기도회</div> <div>월~금 6시(교회밴드)</div> <div>요한복음 묵상</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 |
| <div>* 축복의인사 ↓</div> <div>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div> | | <div>벤후1:2(다함께)</div> | | <div>수요기도회</div> <div>수요일 9:30(예배당)</div> <div>[나의 이름을 위한 집]</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 |
| <div>* 경배찬송 ↑</div> | | <div>시편67편(2-3)</div> | | <div>금요기도회</div> <div>금요일 21시(예배당)</div> | |
| <div>신앙고백</div> | | <div>신앙고백 ↓</div> | | <div>금요일 21시(예배당)</div> | |
| <div>* 감사찬송 ↑</div> | | <div>찬송가548장(1-2)</div> | | <div>지역기도회</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 동부(수, 20:00)</div> | |
| <div>말씀봉사</div> | | <div>설교를위한기도 ↑</div> | | <div>인도 : 양주동 목사</div> <div>* 김해(월, 19시)</div> | |
| <div>성경봉독 ↓</div> | | <div>마10:32-33</div> | | <div>주간성경읽기</div> | |
| <div>교리문답교독 ↓</div> | | <div>하이델베르그99-102문답</div> | | <div>주일</div> <div>창 10-11</div> <div>마 4</div> | |
| <div>선포를위한찬송 ↑</div> | | <div>시편135편(1-3)</div> | | <div>월</div> <div>출 1-3</div> <div>마 5:1-20</div> | |
| <div>설교 ↓</div> | | <div>설교자</div> | | <div>화</div> <div>출 4-6</div> <div>마 5:21-48</div> | |
| <div>바르게 부르라</div> | | <div>아멘 송 ↑</div> | | <div>수</div> <div>출 7-9</div> <div>마 6:1-18</div> | |
| <div>찬송가643장</div> | | <div>자비사역</div> | | <div>목</div> <div>출 10-11</div> <div>마6:19-34</div> | |
| <div>찬송가40장</div> | | <div>폐회</div> | | <div>금</div> <div>출 12-13</div> <div>마 7</div> | |
| <div>* 강복선언 ↓</div> | | <div>설교자</div> | | <div>토</div> <div>출 14-15</div> <div>마 8:1-22</div> | |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새롭게 하사 옛적갈게 하옵소서)

1. 교회를 세울갈 때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가도록
2. 주께서 새롭게 하사 매순간 옛적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되게
3.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되게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1. 개혁주의신앙의 신앙정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도록
2.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하여서는 어떤 권위나 압력에 굽히지 않는 신앙언론되게
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파서교회(강인종목사)

1.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2.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 교회(with 김해개혁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1. 두 교회 연합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바른 방향을 잘 나타내어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2. 두 교회가 올바른 신앙고백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신앙고백을 부지런히 배우고 잘 전수하도록
3. 두 교회 연합예배 및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의 본을 따르며, 사랑의 원리로 연합되게

제직회 조직

1. 제직회 / 장 - 최성림목사 서기 - 김낙형집사 회원 - 제직분자
 - 1) 장 로 / 최성림 양주동 고충석 김영민
 - 2) 집 사 / 김낙형 이경준
 - 3) 서리집사 / 박지영 구성본 김용대
 - 4) 여자집사 / 이영서 김명순 강정희
2. 봉사위원 / 김경이
3. 구제위원 / 장 - 김낙형집사 위원 - 이경준집사 김경이위원
4. 반 주 / 문경실

주일학교 교사

교장 - 최성림목사 교육담당 - 양주동목사

1. 청년부 - 김낙형
2. 중고부(SFC) - 김영민 조완식
3. 초등부 - 이경준 박지영 구성본 최진언(보조-이근영)
4. 유치부 - 김용대 노주혜 김학희(보조-이하나)
5. 안전도우미 - 강정희 최현미 노주혜 조안나

성찬조직

1. 성찬교구

| | |
|----|---|
| I | 교구장 : 고충석 장로 이경준 집사 |
| | 고충석 김명순 이경준 최현미 박지영 조안나 김용대 문경실 김영규 박종순 김요림 최예지 최진언 고태은 고주는 고서은 이은수 고대벽 김유안 |
| II | 교구장 : 김영민 장로 김낙형 집사 |
| | 김영민 노주혜 김낙형 강정희 김영덕 이영서 김경이 구성본 김학희 김민혁 이한나 김유니 조완식 이근영 김성윤 구하영 김성재 방준범 김지현 최하연 |

2. 성찬조

| | |
|--|--------------------|
| 성찬 1조 | 조장 : 고충석 부조장 : 김용대 |
| 고충석 김명순 김영덕 김용대 문경실 방준범 김유니 김요림 이영서 최예지 고태은 고주는 고서은 김유안(김이현 김이찬 김이설 방하림 양선 양현) | |
| 성찬 2조 | 조장 : 김영민 부조장 : 이경준 |
| 김영민 노주혜 이경준 최현미 김민혁 이하나 김경이 조완식 최하연 이은수 고대벽(이은우 김선우 김이준 김이술 / 이수정-원임) | |
| 성찬 3조 | 조장 : 김낙형 부조장 : 박지영 |
| 김낙형 강정희 박지영 조안나 구성본 김학희 김영규 박종순 최진언 이근영 김성윤 김성재 구하영 (구하린 박재희 박재윤) | |

1. 망령되이 부르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찬송이나 기도, 그리고 ‘예배’를 의미합니다(창 13:4; 21:33).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고, 거짓되고, 가짜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의 이름을 헛되고 가볍게 부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고, 의미없이 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부릅니다. 그래야 신이 감명하여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볍고 헛되게 부르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부르는 일은 “성령을 훼방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 야웨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이라 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자들에 대해서도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이 죄를 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죄를 막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100문).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못하도록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2. 바르게 부르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욕하는 행위는 “성령훼방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죄를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각인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모독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요 4:23).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3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3. 맹세에 대하여

101문답은 “재세레파”에 대한, 102문답은 “로마카톨릭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세레파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유로(마 5:34), 그리고 로마카톨릭교회가 너무 맹세를 남발한다는 반작용으로 인해 맹세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로마카톨릭교회는 성인들이나 천사들을 통해 헛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남발하는 것도 다 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는 우리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진실함이 듬뿍 묻어나야 합니다. 설교 후에 “아멘”을 했다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 5일 주일오전]

| |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찬 273장 |
| 성경봉독 | 매5:19-22 약4:8-10 |
| 설 교 |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부모대독 |
| 기 도 | 부 모 |
| 주기도문 | 다 같 이 |

주제 : “패역한 교회의 참된 회복은 주께서 약속하신 옛적같이 될 때에 이뤄진다”

예레미야선지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징계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1. “흔들리는 성전, 흔들리지 않는 보좌”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 시온산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우가 노니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있고 그분의 권세가 세세토록 있다고 말합니다(19) 범죄한 인간들이 땅에 있는 보좌, 곧 성전은 허물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보좌는 영영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우시고 선하심도 영원하십니다.(약1:17)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나의 요동함이나 세상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사49:15)

이런 확신이 있기에 선지자는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최후의 호소를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20). 그러므로 이 탄식과 기도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강한 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호소할 염치도 없고 불평을 말할 자격도 없지만, 영원한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겸손히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어찌 시온산의 황폐와 예루살렘의 패망만 바라보며 절망만 하겠습니까? 도리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2. “옛적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세상의 제사장나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사42:6,레26:12).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아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야웨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옛적

을 회복하게 하소서'(Reformed). 주님의 교회가 원래 아담에게 명령하신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그리워하는 '옛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유일한 터이십니다.(요5:39)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웨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출애굽때 광야에서 선포하신 율법이 오늘 우리교회에도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선지자는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당신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택하신 백성을 망하게 내 버려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과연 다윗의 계통을 통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이키는 것은 지혜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3.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애가는 너무 절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마무리를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선포한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렘25:11-12, 29:10). 분명 범죄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유다백성들은 주께서 아예 버리시는 듯한 심각한 언약의 징계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다시 맞으시며, 처음의 위로를 더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와 교회사에서 우리는 기도와 부흥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죄를 슬퍼하는 회개가 포함된 기도는 부흥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철저한 회개를 권면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마음의 청결을 이루라고 권하는 것입니다.(약4:8-10)

예레미야가 눈물 가운데 평생 기도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더 타락해 버리지만 신앙의 사람은 무릎으로 그 세월을 감당합니다. 이런 기도가 소망을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시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섬기는 자는 마침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과 그에게 최고의 삶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 5일 주일오후]

| | |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찬 송 | | 찬 40장 |
| 성경봉독 | | 마 10:32-33 |
| 설 교 | 바르게 부르라 | 부모대독 |
| 기 도 | | 부 모 |
| 주기도문 | | 다 같 이 |

주제: “하나님은 찬송 받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당신의 이름을 언약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고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